

양돈장의 인력문제를 생각한다



정 화 진
(정진농장 사장)

최근 양돈경기가 외형상 좋게 보이고는 있지만, 언제 엄청난 수입쇠고기의 저가방출이 실시될지 불안한 실정이다. 또 언제 돼지고기의 수입을 결정해서 '79년도와 같은 불황이 다시 재현되지는 않을지, 또한 축산분뇨의 합리적이고 현실적 대책을 어떻게 해야 하며, 현재의 인력이 감원이라도 된다면 과연 보충은 될 것인지 불안한 마음이 더 앞서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오늘은 그중 인력문제를 주로 생각해 보기로 하자.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구조도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위주로, 또 첨단정보화 방향으로 급속히 이행되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현실에서 농촌노동 생산성에 비추어 도시노동 생산성이 높을 수밖에 없고, 본인 및 자녀의 교육과 기회 및 수입 등을 고려, 도시집중화 현상이 일어나 상대적으로 농촌의 공동화(空洞化)내지는 노동력의 노령화 현상이 생겨 농촌 총각이 장가들기 어렵게 되고, 농촌의 젊은이가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지방화시대가 열리고 살기 좋은 농촌이 된다면 비인간적 도시에서 인간적 삶을 영위하려는 사람들이 도시에서 농촌으로 인력의 역류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 본다. 더불어 정치·경제·사회적 정책이 도시와 지방의 균형발전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고, 또 오늘의 취약한 농촌을 살기 좋은 농촌으로 만드는데 정부가 힘을 기울여야 하겠다.

민주화 물결에 따라 노동자의 권익증진은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또 노동자에 대한 요구의 조절이 안되는 사례도 많아 직장폐쇄 또는 일자리 감소로 인하여 오히려 사회발전의 장애요인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년간 상당한 시련과 시행착오를 거쳐 노사양측의 이해와 협동의 시대로 접어드는 양상이 크게 부각되는 듯 했다.

한편 노동임금은 지난 2년간 전례없이 인상되어 물가상승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부동산의 급등은 내집 마련의 꿈을 송두리째 뺏어버린 꼴이 되었으며, 그 결과 정부는 장기임대주택 건설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여건속에서 어떻게 양돈장을 이끌어 나갈 것이며, 어떻게 가족과 마찬가지로 고용노동력을 확보하고 유지해야 할지 참으로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첫째, 개방화시대에 국제경쟁력 있는 노동생산성과 그에 상응한 보수(임금)가 산업사회를 유지하는 합리적 보수이긴 하나, 현실은 생활이 보장되는 생활급으로서의 보수가 요구되기도 한다. 양돈장은 각 양돈장마다 여건이 각기 다르므로 구체적으로

야기 할 수는 없으나, 앞으로의 추이를 볼 때 생활급과 추가 생산성에 대한 인센티브의 지급을 고려하여 1인당 관리두수를 최대로 하고 생산성 제고에 더욱 힘을 쏟는 경영의 합리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최대한 시설의 자동화와 합리화로 인력을 절감할 수 있도록 장기저리의 시설합리화 자금이 하루속히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종업원의 후생복지대책에 보다 적극적이어야 할 줄 안다.


옷장을 만들고 샤워시설을 설치하여 작업으로 인한 냄새가 작업후에는 방지되도록 노력하고 작업의 양과 질을 조절하여 무리없이 즐거운 작업환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인간관계의 증진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인격적 대우와 신뢰의 부여, 인간적 대화의 증진으로 가족으로서의 노사관계와 주인의식을 제고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독선은 불신을 낳지만, 상대존중은 신뢰를 쌓고 책임감을 증대시키며 능률을 제고시켜 준다. 가족적 분위기의 창출과 종신고용의 신념으로 상호관계를 연구해봄직 하다.

지금까지 양돈산업은 호황과 불황의 반복을 통해서 과소생산과 과잉생산이 이루어져 왔다. 앞으로는 안정된 직장분위기, 합리적인 시설에 의한 적당한 양의 노동력 투입과 그러면서도 생산성을 제고하는 적정경영 및 전문경영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직장으로서의 긍지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양돈장을 만들어 나아가야 할 때이다. 더구나 직원이 하나를 일하면 간부는 세 배를 일하고, 사장은 열 배를 일할 때이다.

우리는 전문경영의 시대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기 위해서는 피나는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특히 양돈인들은 지금까지 단순하고 안이한 자세를 다시한번 반성하고 점검하여 낭비적 요소를 과감히 제거하고 생산적 투자를 효과적으로 실시하여 안정된 직장인으로서의 양돈장을 만들고 경쟁력이 강한 생산업체를 만들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외형이나 규모보다 내용과 질이 사업의 성장잠재력을 인식해야 할 때이다.

또 한편으로는 협회 등을 통한 권익보호 활동의 강화와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여건조성 활동도 꾸준히 계속되어 돈육의 안정공급, 저렴한 원가, 우수한 육질, 합리적인 유통, 육가공업의 발전 등 선진국 수준으로의 양돈산업이 되도록 착실히 진전되어야 할 것이다. 

양돈장의 인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관계의 증진에 힘써야 한다. 독선은 불신을 낳지만, 상대존중은 신뢰를 쌓고 책임감을 증대시키며, 능률을 제고시켜 준다. 가족적 분위기의 창출과 종신고용의 신념으로 상호관계를 연구해봄직 하다.